



메드베데프

# “내가 간다 결승” 4강서 만난 앙숙

다닐 메드베데프(2위·러시아)가 세트 스코어 0-2 열세를 뒤집고 호주오픈 테니스 대회(총상금 7500만 호주달러·약 644억원) 남자 단식 4강에 진출했다.

메드베데프는 26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10일째 남자 단식 준결승에서 펠릭스 오제알리아심(9위·캐나다)에게 3-2(6-7<4-7> 3-6 7-6<7-2> 7-5 6-4) 역전승을 거뒀다.

4시간 42분 만에 8강을 통과한 메드베데프는 준결승에서 스테파노스 치치파스(4위·그리스)를 상대한다.

치치파스는 앞서 8강전에서 니키 시니(10위·이탈리아)를 3-0(6-3 6-4 6-2)으로 완파하고 4강에 먼저 올랐다.

이번 대회 남자 단식 4강은 이미 전날 준결승에 오른 라파엘 나달(5위·스페인)과 마테오 베레티니(7위·이탈리아)의 맞대결과 메드베데프와 치치파스의 경기로 펼쳐진다.

올해 호주오픈에는 1번 시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해 불참하게 되면서 2번 시드인 메드베데프가 사실상의 톱 시드다.

### 호주오픈 테니스 라이벌전 관심

메드베데프, 8강전서 대역전승  
결승 길목서 치치파스와 맞대결  
사과 문제 놓고 서로 험한 말 오가  
2018년 맞대결 후 사이 나빠져

그러나 메드베데프는 이날 2000년생 신예 오제알리아심을 맞아 먼저 1, 2세트를 내줘 탈락 위기에 내몰렸다.

3세트 타이브레이크 상황에서 변수가 생겼다. 타이브레이크에서 메드베데프가 2-1로 앞선 때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잠시 중단됐다.

로드 레이버 아레나 지붕을 닫느라 경기가 10분 정도 중단됐고, 경기가 재개된 이후로는 메드베데프가 연달아 3포인트를 따내 5-1로 훌쩍 달아나 베팅 끝에서 탈출했다.

4세트 게임스코어 5-5에서 오제알리아심의 서브게임을 브레이크, 승부를 5세트로 끌고 간 메드베

데프는 5세트 초반 다시 위기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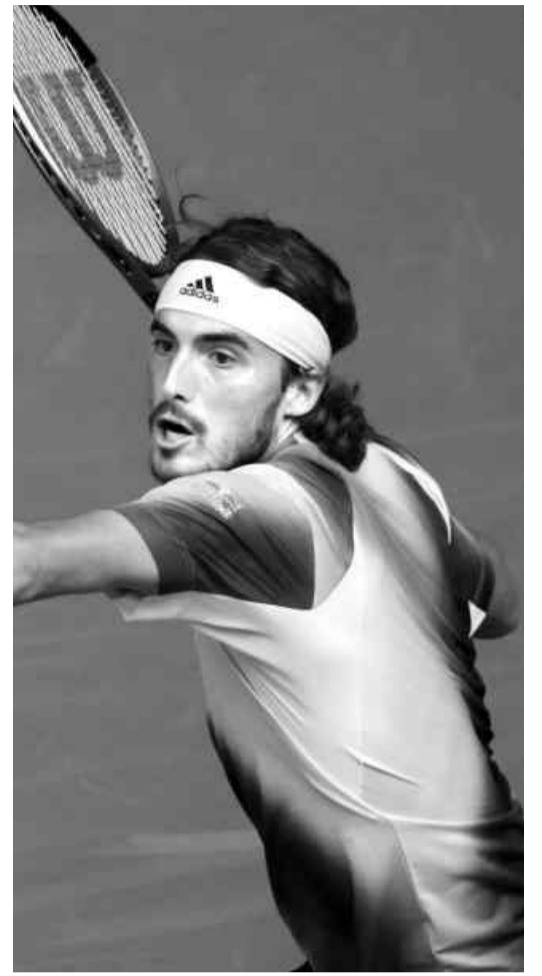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15-40으로 밀리며 더블브레이크 포인트를 허용했지만 연달아 두 포인트를 따내 위기를 넘겼고, 곧바로 이어진 상대 서브 게임에서는 오제알리아심이 더블 폴트 2개를 쏟아낸 덕에 오히려 2-1로 앞서기 시작했다.

이후 오제알리아심이 4-5로 뒤진 메드베데프의 서브 게임에서 15-40, 더블브레이크 포인트를 다시 잡았으나 이때도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해 메드베데프의 대역전승으로 경기가 끝났다.

4강에서 만나는 메드베데프와 치치파스는 잘 알려진 '앙숙'이다.

2018년 마이애미오픈에서는 맞대결 후 네트를 타고 들어온 공과 토일렛 브레이크에 대한 사과 문제로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기도 했고, 이후로도 둘은 서로에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둘의 상대 전적은 메드베데프가 6승 2패로 앞서지만 최근 대결인 지난해 프랑스오픈 8강에서 치치파스가 3-0(6-3 7-6<7-3> 7-5)으로 이기는 등 최근 세 경기에서는 치치파스가 2승 1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호주오픈에서는 4강에서 맞붙어 메드베데프가 3-0(6-4 6-2 7-5)으로 이겼다. /연합뉴스



치치파스



### 올림픽 향해 질주

27일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2022 전국남녀 중별종합스피드스케이팅선수권 대회 남자실업부 500m 세퍼레이트에서 김민석(성남시청)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코로나에...한국 핸드볼 카타르전 기권

아시아 남자핸드볼선수권  
조 3위로 5~6위전에 진출

제20회 아시아 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 출전 중인 우리나라 대표팀이 결선리그 최후전인 카타르전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26일 “현지 대사관을 통해 신뢰도 있는 병원을 섭외해 실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결과 카타르전에 출전할 선수 구성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담맘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대회 결선리그 최후전 카타르와 경기를 이 날 치를 예정이었다.

한국이 불참하면서 이 경기 결과는 카타르의 10-0 승리로 기록된다. 1승 2패가 된 한국은 조 3위로 5~6위전에 진출, 결선리그 2조 3위 팀과 5위 자리를

놓고 다투게 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이미 호주, 베트남 선수단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기권한 경기가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2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경기를 앞두고 박종하 감독과 주전급 선수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른 2명의 선수도 코로나19 유사 증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대회 상위 5개 나라가 2023년 폴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개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할 때 5~6위전 결과가 중요하지만, 한국은 선수단 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6위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대한핸드볼협회는 “대회 조직위원회 방역 체계에 대한 참가국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현지 안일한 코로나19 관련 인식 등의 상황에서도 대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선수단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안전한 귀국을 위해 만반의 준비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나이 잇은 ‘베이징 베테랑들’

50세 빙속 페히슈타인·38세 스켈레톤 두쿠르스 등 노장 투혼  
41세 크로스컨트리 이채원 한국 최고령 올림픽 6회 출전 최다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 가운데 최고령은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출전하는 이채원(41·평창군청)이다.

1981년생 이채원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선수단 최고령 선수였고, 4년 뒤인 이번 대회에서도 최고령 타이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동계올림픽 6회 출전으로 한국 선수 역대 동·하계 올림픽을 통틀어 최다 출전 타이틀을 세웠다.

그런데 독일의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클라우디아 페히슈타인(50)은 이채원보다도 9살 많은 ‘왕언니’다.

페히슈타인은 30년 전인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0m 동메달

을 시작으로 2006년 토리노까지 동계올림픽 5회 연속 메달을 따낸 선수다.

올림픽 통산 메달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다.

2009년 도핑 관련 징계를 받아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후 2014년 소치, 2018년 평창 대회에 나와 이번이 자신의 8번째 올림픽 출전이다. 이는 역대 동계올림픽 최다 출전 타이틀이다. 페히슈타인 외에 스키점프의 노리아키 가사이(일본)가 동계올림픽 8회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이번 대회 메스 스타트에 출전하는 페히슈타인은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올림픽에 8번째 나오게 됐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도 출전했다면 9번째 올림픽이 될 뻔했다.



페히슈타인



두쿠르스

중국 신문 차이나 데일리는 27일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베테랑 선수들을 소개했다.

페히슈타인 외에 스피드스케이팅 이레인 뷔스트(36·네덜란드), 쇼트트랙 아리안나 폰타나(32·이탈리아), 노르딕 복합 와타베 아키토(34·일본), 스켈레톤의 마르틴스 두쿠르스(38·라트비아), 에어리얼 종목의 슈명타오(32·중국), 쇼트트랙 샤를 아를랭(38·캐나다), 스노보드 류자위(30·중국)와 차이쉐통(29·중국)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노장 투혼을 불사를 선수들로 지목됐다. /연합뉴스

## 안형승 광주장애인양궁 실업팀 감독 임명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7일 광주시청에서 안형승(사진 오른쪽) 전 국가대표 코치를 광주장애인양궁 실업팀 감독으로 임명했다.

안 감독은 한국체육대학을 거쳐 같은 대학원에서 운동역학으로 석·박사를 마쳤다. 2010년 세계양궁연맹 총감독으로 국가대표를 지도했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한양궁협회 컴파운드 국가대표 코치를 역임했다.

그는 코치로 국가대표팀을 맡아 2019 세계선수권대회, 2021 아시아컵 1차대회, 2021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단체, 혼성단체, 개인종합 1위를 이끌었다.

광주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코치급 감독 영입으



로 광주 장애인양궁이 제2의 도약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LOTTE CINEMA | 증장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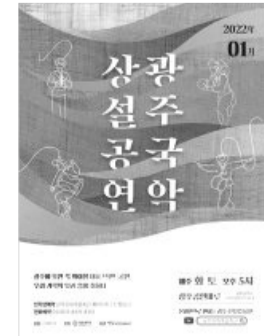
###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해작: 도깨비 깃발
- 2관 해작: 도깨비 깃발, 극장판 인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 3관 해작: 도깨비 깃발,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 4관 킹메이커
- 5관 킹메이커
- 6관 해작: 도깨비 깃발
- 9관 해작: 도깨비 깃발
- 7관 씨네케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씽2계단 극장판 인형 자두야: 제주도의 비밀,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극장판 천재 추리 탐정 설류홀츠
- 8관 씨네케틀 킹메이커, 특송, 경관의 피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1회 정기연주회  
타임머신  
일시 : 2022.02.18.(금)~19.(토)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524-5086

